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신입생 소개



이리구치 지오바나
아야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에서 온 융합생명공학과 23학번
학부생 아야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문화가 좋아져서 언젠가는 꼭 한번
한국에 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건국대의 교과
과정 가장 흥미롭게 보였으며, 꼭 건국대학
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I believe that the more I fail and recover and improve, the better I am as a person. Hello, I am Sara, the 2023 GKS scholar from Iran. I applied three years in a row to get into Konkuk University and study in Korea. South Korea may not be the first country that comes to people's minds when they think of international study destinations. However, for so many reasons, it deserves more than a second look. Here is why I considered this country my first choice: the most popular fields of study in South Korea are arts and science. Most importantly, South Korea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fields that I am most interested in and it consistently claims a place atop innovation. Being an architecture student in South Korea can open up a ran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e. I love so many things about Konkuk University, how beautiful the environment is and how welcoming I felt the first time I stepped into the university. While studying architecture at Konkuk University, we are also able to study a range of related fields to architecture simultaneously.



칸 진터

Hello, I am Khant Zin Thaw from Myanmar. I got admission to the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with GKS at Konkuk University. Currently, I am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Konkuk University. As a youth who is passionate about eco-friendly urban planning and implementing city structures, South Korea is the best option for me to achieve my dream which will be beneficial for our society. I also believe that Konkuk university, which is the fastest-growing and eco-friendly university in South Korea, could provide me with high academic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Throughout my University Student Life, I will dedicate my time to upgrading my skills and would like to do research and innovation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inally, I strongly hope that Konkuk Universit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my life-long journey, and I believe all the good things will happen on my Konkuk student journey.



사라

신입생 멘토링



2023학년도 1월에 입학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총 3번의 신입생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학생 선배들은 SID 생성법을 시작으로 수강신청, 건국대 도서관 이용방법, 기숙사 및 건국대 주변 맛집과 카페, 대중교통 이용법 등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생활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점, 음식 문화 차이,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등을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선배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여러분 건국대학교 입학축하하며 모두 즐겁고 행복한 건국대학교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2022 GKS 학업 우수상:
아멜리아 리사 (석사/문화콘텐츠학과)

국제처 이동혁처장님 & 외국인학생센터 이중혁 센터장님께서 상장 수여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GKS 학업 우수 수상자인 리사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해 주셨으며, 노고와 성과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국대학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소식지



문화교류프로그램

돈의문박물관 도슨트 투어

- 돈의문박물관마을을 가장 빠르게 알아갈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한국의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제니퍼

2023. 1. 13.(금)



프로그램이 끝나고 만나게된 친구들과 저녁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각과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비가 와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 아이하늬

카페의 아늑한 느낌과 옛 르네상스의 고급스러운 느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흥미로웠어요! - 베르조드

도심 속에서 즐기는 눈썰매장

- 새하얀 눈 위에서 눈썰매와 빙어 낚시까지 즐길 수 특색한강공원 눈썰매장

2023. 2. 10.(금)



이번 문화교류프로그램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고 썰매도 정말 신났어요. - 수니다

문화교류프로그램은 항상 즐겁지만 그중에서도 눈썰매가 재미있었어요! - 페르난다

학기초 간담회

2023. 3. 30.(목)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2023학년도 1학기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번 학기 주요 안내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새로운 신입 학생들과도 만나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